



강북구의회
GANGBUK DISTRICT COUNCIL

의정활동보도

2013년 03월 11일
(월요일)

서울포스트 4면

김도연 의원 업무추진비 줄여 지역신문 지원해야



강북구의회 김도연 구의원(비례대표)은 지난 8일 강북구의회 제16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강북구에 건강한 지역 언론 신문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 강구 일환으로 업무추진비와 관련 신문지원위원회를 만들어 우량신문을 지원해 나가야한다는 내용으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김도연 의원은 먼저 업무추진비는 각 과의 사업과 관련해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이라고 말하고 지난해 홍보담당관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화면으로

제시하며 강북구 홍보담당관은 간담회란 공적 명목으로 지난해 한해 3,650만원이 지출되었다고 지적했다.

또 매월 20일 이상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는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하고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일부를 투명한 신문사 광고료로 지원하는 방법은 효율적 배분이라고 생각한다.

김 의원은 이어 지역신문을 모니터링해서 우량신문에게 광고비용으로 주어서 효율적 예산으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객관적인 평가는 잘못된 사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 해서 편향되지 않고 공정한 객관적인 보도로

간접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적 기준을 참조하여 우량신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신문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구를 구성한 후 우량신문을 지원해야 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은 이권이 개입되지 않도록 구성되어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준 없는 지원과 관련적인 지원으로 신문의 환경은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2억이 넘게 편성되어 있는 언론 예산 집행에 있어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건강한 지역 언론이 형성되고 신뢰있는 지역여론이 형성되어 지역신문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강북구청장에게 시책을 강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북신문 3면

“간담회비 줄여 광고비로 지원을”

김도연 의원, 본회의서 신상발언 통해 밝혀

지역신문을 포함한 주민용 구독신문의 예산과 구독의 재조정을 주장해온 김도연 강북구의회 의원이 이번에는 구청과 신문사간 간담회비의 과다사용을 지적하며 “간담회비를 줄여 광고비로 지원을 해달라”는 주장을 펼쳤다.

김 의원은 지난 8일 열린 제16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홍보담당관의 구청홍보예산비 중 업무추진비의 경우 지역신문과의 간담회비로 매월 20일 이상 지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지역신문 간담회비의 경우 지난해 1월에 14일간 약 412만원을 사용하고 6월에는 18일동안 253만원의 예산이 들었으며 광역과 중앙신문을 포함하면 약 한달에 2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에 간담회비를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1월에 비슷한 명목으로 약 100만원 넘게 사용됐고 4월 23일부터 28일까지 매



8일 본회의장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김도연 의원.

일 똑같은 명목으로 146만원이 지출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렇게 작년 한해 사용된 신문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연 3,650만원”이라며 “불투명한 업무추진비 일부를 투명한 신문사 광고료로 지원하는 방법은 강북의 넘쳐나지 않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불투명한 업무 추진비 일부를 우량신문 광고료 지원하자

김도연 의원(민주통합당, 비례대표)

본의원은 강북구에 건강한 지역언론신문 조성하기 위한 시책강구 일환으로 업무추진비 관련 의견을 발언하겠습니다. 보통 강북구는 사어법 약 5~10%로 업무추진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과의 사업 관련해서 원활한 구정을 수행하기 위해 쓰이는 비용입니다. 그러나 2012년 작년 한해 홍보담당관의 구정홍보예산비 중 중앙일간지, 광역, 지역신문 구독 관련업무추진비를 보면 간담회란 공적명목으로 겹치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 시 어떠한 이야기가 오고갔는지 알수 없는 상황에서 매월 20일 이상 같은 명목으로 지출되고 있고 이렇게 작년 한 해 사용된 신문홍보관련 업무추진비가 연 3650만 원이 지출된 것은 그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예산을 줄여서 구 광고비 명목으로 지역신문활성화비로 사용하면 더 효율적 홍보 예산으로 지출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본의원은 행정감사때나 구정질문시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과 지역언론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소통을 하였습니다. 그 대안으로 광고비를 우량신문에게 인센티브처럼 보조해주는 대안을 제시합니다. 현재 지역신문은 모두 열악한 환경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단순 홍보성 기사나, 몇몇 인사에 치적만 보도하는지 아니

면 감시와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지 지역신문을 모니터링해서 우량한 신문에게 광고비용으로 주어 더 효율적 예산으로 쓰일 수 있게 하는 것이 지역신문발전에 보탬이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량신문이 어떤 기준이있느냐는 빈문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2011년 행정감사시 "잘못된 보도사례가 있는지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해서 그사항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평가를 할수 있다. 편향되지 않고 공정하게 객관적인 보도로 간접적으로 평가할 수있다. 취재의 양 또한 간접적 평가로 생각했으며, 지역신문은 지역주민들에게 가깝게 다가가서 주민들의 삶과 이야기나 정보 등 유통시켜야 한다고 했으며, 구정에 대한 기여도나 보도의 양을 따져서 차후에 예산지원 문제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라고 홍보담당관의 답변에 잘나와있습니다.

정말 공정하고도 객관적인 평가입니다. 이런 표준적 기준을 참조하여 우량신문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신문지원위원회를 만들어 기구를 구성한 후 우량신문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이며, 위원회 구성은 당연히 이권이 개입되지 않은 객관적인 위원회로 구성되어야하겠습니다.

불투명한 업무 추진비 일부를 투명한 신문사 광고료로 지원하는 방법은 강북구의 넉넉지 않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일 것입니다.



우리 강북구에서는 2000만 원이상의 물품구매시 입찰에 불이고 입찰 기준과 원칙에 맞는 업체만이 선정됩니다. 하물여 2억이 넘게 예산이 편성된 지역언론예산은 기준없는 지원과 관례적인 지원으로 예산 편성에 어려우며, 지역신문의 환경은 더 어려워 질 것입니다.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제4조 1항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강제조항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시책을 강구해 줄 것을 본의원은 촉구합니다.

기준과 평가가 있어야 건강한 지역언론이 형성되고 신뢰있는 지역언론이 형성 되어 지역신문이 활성화 될 수 있습니다. 그 혜택은 모두 우량정보라는 받을수 있는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최동수 기자 cds0012000@hanmail.net)